

외부자 시선으로 북한에 대한 편견·오해 벗겨내기

시유 어게인 in 평양

트래비스 제퍼슨 지음·최은경 옮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밤놀이 문화가 거의 없는 도시에서 외교단회관은 술에 취해 방탕하게 놀기에 제격인 곳이다. 지난번에 여행 왔을 때는 1980년대에 오스트리아 빈 주재 북한 대사관직원으로 해외에 살다 온 중년 여성 안내원이 우리가 있던 노래방의 문이 단단히 잠긴 것을 확인하자마자 뛰어나가 ‘댄싱퀸’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내내 그녀는 자신이 아바(ABBA)의 전곡을 훤히 꿰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더 놀라웠던 일은 그녀가 담배를 여러 대 피웠다는 것이다.”(본문 중에서)



인 in 평양’을 펴냈다. 외부자의 시선으로 편견 없이 북한의 가장 내밀한 얼굴을 들여다본 결과물로 그간의 오해와 편견을 벗겨낸다.



저자는 “세계 최악의 나라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갖고 있지만, 북한은 사실 한국 국적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여행이 상당히 자유로운 곳”이라고 말한다. ‘대동강호’ 유람선에서 바라본 평양시내. <광주일보 자료사진>

지난 2월 베트남에서 열린 북미회담 이후 양측의 교착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북미 간 기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북미협상이 완전히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측은 각자의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는 눈치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남북의 화해 분위기가 조성된 것은 맞지만 여전히 북한은 가깝고도 먼 곳이다. 바깥세상에 알려진 북한의 실상은 단편적이어서 여전히 ‘금단의 땅’이라는 시각에 머물러 있다.

미국인 최초로 북한으로 유학을 떠난 소설가가 있다. 주인공은 베를린과 상하이로 중심으로 활동 중인 트래비스 제퍼슨. 미국인 신분으로는 처음 북한에서 조선어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수료한 그가 ‘시유 어게

저자는 2016년 여름 평양에 체류하며 북한의 명문 김형직사범대학에서 조선어를 배웠으며 틈틈이 평양과 그 주변 지역을 돌아다니며 북한 사람들의 삶을 관찰했다. 주민의 목소리를 확실화하는 북한 정권에 대한 비판은 유지하되 자신이 보고 느낀 북한과 주민들의 일상을 세세하게 그려낸다.

의 이데올로기 선전도 경험한다.

평양의 스카이라인과 불쑥불쑥 솟아오른 기념물, 건물이 주는 느낌은 자못 이색적이다. 평양에 오는 관광객들의 첫 번째 행선지는 ‘개성문’이다. 파리에 있는 동명의 그것과 닮았지만, 안내원들은 파리보다 11미터가 높다고 강조한다.

“미묘하게 차이를 보이는 연복송아색, 청록색, 연보라색, 자주색, 금빛 호박색, 카나리아색, 황토색, 민트색으로 물든 세련되고 절제된 건물들이 바다를 이루고 있다. 흑백사진으로 찍어놓으면 도시는 여전히 동베를린과 닮은 부분이 있다. 페인트 한 겹이 내는 효과가 놀라울 따름이다.”

흥미로운 점은 북한 주민들은 자본주의의 급격한 침투로 변화의 기로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젊은 지도자의 등장에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으며, 더러 해외에서 오래 생활한 이들은 체제의 실상과 허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저자는 모든 것을 철저히 ‘외부자’의 시선으로 본다. 남한 사람들이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측면과는 결이 다른 시선이다. 북한 체제의 기반과 허상에 혼란과 분노를 느끼면서도 객관적인 관점이 돋보인다.

<메디치> 1만8000원 /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여행지에서 느긋하게 책 한 권 읽어보세요

도시를 걷는 문장들

강병용 지음



당신이 어딘가로 여행을 떠날 때 일상용품과 함께 빼놓지 않고 챙기는 건 무엇인가?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여행지에서 들을 ‘음악’을 고르지 않을까. 기차를 탈 때, 낯선 거리를 걸을 때 ‘나만의 플레이 리스트’를 들다 보면 행복한 기분이 들 때가 많다.

또 하나, 책 한 두권을 가방에 넣는 이들도 많을 듯하다. 막상 여행지에 도착하면 느긋하게 책을 읽을 시간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현지 여행의 동반자로서 책 만한 것은 없는 듯하다.

슬로베니아 류블라나 대학에서 한국문학을 가르치고 있는 소설가 강병용이 펴낸 ‘도

시를 걷는 문장들’은 여행지에서 읽을 책에 관한 이야기다. 여러 도시를 여행할 때마다 그와 함께 했던 책, 함께 걸었던 문장들이 있었고 유럽 20개국 22개 도시 이야기와 그곳에서 만난 22권의 책 이야기를 담아 펴냈다.

“일상스러운 여행’을 즐기는 그는 일상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처럼, 여행지에서도 기대 없이 즐기는 게 모토다. 피곤하면 낮잠을 자고, 영화를 보고 싶으면 영화를 보고, 에스프레소를 즐기는 일상의 삶속에서 ‘떠나는 대로 읽는 건’ 또 하나의 즐거움이다.

우울한 날들이 계속될 때 누군가의 추천으로 마스다 미리의 ‘몽클하면 안되나요?’를 접한 그는 책을 들고 크로아티아 플리트비체로 떠난다. 국내에도 팬이 많은 마스다 미리는 편의점에서 문을 잡아주는 중학생에게, 노래를 못부르는 사람에게 ‘몽클’ 해하는 ‘초공정인’이다. 여행지에서 책을 읽으며 마스다 미리의 ‘몽클함’에 빠져든 그는 일상으로 돌아와 마스다 미리처럼 자주 ‘몽클함’에 빠져드는 자신을 발견한다.

고 말한다.

그밖에 제임스 조이스의 ‘더블린 사람들’을 읽은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 트리에스테, 김이정의 ‘유령의 시간’과 함께 한 체코 프라하, 윤고은의 ‘높은 차와 하치하이커’의 구절을 마음에 새긴 루마니아 클루지나포카, 영화로도 만들어진 앤디 워어의 ‘마션’을 갖고 떠난 이탈리아 베니수까지 다채로운 이야기가 펼쳐진다. 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데이비드 에버소프의 ‘대니슈 걸’을, 라트비아 리가에서 천명관의 ‘고령화 가족’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니콜라이 고골의 ‘코’를 읽는 그의 여행길에 동참하는 것도 흥미롭다.

저자의 여행과 책읽기를 따라 가다보면 이미 읽었던 책은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와 ‘여행지’에서 한번 다시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든다. 또 새롭게 알게 된 책을 가방에 넣고 어딘가로 떠나고 싶어진다.

다음 여행길, 내 여행의 동반자는 무슨 책일까. <한겨레출판> 1만5000원 /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 **교사 전쟁** = 교원 정년 연장 문제부터 차터스쿨에 이르기까지, 교직을 둘러싼 정치학적 논쟁에 앞장선 교사들의 이야기를 한 데 모은 책이 출간됐다. 미국 교육 175년 역사에 기록된 교육의 여성화, 인종차별적 교육, 교원노조의 탄생, 진보적 교육 등 교육 주체와 교사 간 불거졌던 전쟁같은 충돌들을 살펴보고 ‘훌륭한 교사’가 만들어지는 길을 탐구한다. <살림터> 2만3000원



▲ **플라스틱 없는 삶** = 어미 알바트로스가 플라스틱 조각을 먹으며 작각해 새끼에게 먹이더라도, 심해어 배속에서 플라스틱 더미가 나오더라도 안타깝긴 하지만 놀라지는 않는 세상이다. 환경 파괴를 막고 보다 나은 지구를 후손에게 물려주고자 플라스틱 없는 삶을 택한 이들을 위한 지침서를 그린피스 영국 사무소 해양 캠페인 총괄 윌 맥컬럼의 글로 펴냈다. <북하이브> 1만4000원



▲ **90년생과 어떻게 일할 것인가** = 자기 중심적이고 좋고 싫음이 분명한 90년생 신입사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금, 이들에게 기존 리더십이 통하지 않아 당황한 조직 리더들을 위한 책이 나왔다. 간섭이 아닌 관심을 원하는 밀레니얼 세대 젊은이들의 사고 방식을 파헤치고 바람직한 리더가 가져야 할 가치를 살펴본다. <위즈덤하우스> 1만6000원

의 필수요소가 된 ‘국제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협상 전략을 보편성과 특수성을 아울러 통합적으로 담은 책이 나왔다. 김민호 변호사와 안미영 교수가 직접 참여한 국제 협상 현장에서 얻은 실무 노하우와 다년간의 협상 이론 연구 자료를 ‘손자병법’, ‘삼국지’ 등 동양 고전에 비유해 이해하기 쉽게 엮었다. <인문사> 1만7000원

▲ **협상의 힘** = 글로벌 시대 비즈니스

어린이·청소년 책

▲ **올리버 트위스트** = 뒷골목의 삶을 살면서도 따뜻한 마음과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올리버 트위스트의 삶을 통해 19세기 영국 사회에 만연하던 부조리를 풍자한 찰스 디킨스의 대표작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새로 펴냈다. 노동자들이 비인간적인 환경, 낮은 임금, 고된 노동에 시달리던 당시 사회를 비판하며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준다. <스폰북> 1만2800원



▲ **아빠와 함께 떠나는 놀라운 모험의 세계** = 저자 데디킨이 아마존 여행 중 외딴 오두막에서 발견한 이름 모를 모험가의 기록을 2년에 걸쳐 복원해 숲, 바닷가, 정원 캠핑에서부터 난파선 탐험, 아프리카 자전거 여행까지 다채로운 모험 지식을 세밀한 스케치로 담았다. 서바이벌 키트 꾸리는 법, 물고기 잡는 법, 상처 치료법 등 유용한 정보를 한국스카우트연맹 감수를 거쳐 실었다. <제재의 숲> 2만5000원



▲ **의종은 형제** = 고려 시대 말에서 조선 시대 초까지 살았던 이성만, 이순 형제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유명한 전래 동화를 오진원 동화작가의 글과 박규민 그림작가의 그림으로 엮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형제간 우애와 가족 간 지켜야 할 도리, 서로를 위하는 두터운 마음을 한 권에 담았다. <하루루> 1만1800원





지역 기업에 지역의 인재를!

1972년 나주한독공업고등학교로 출발한 나주공업고등학교는 기계·전기계열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학생의 소질과 눈높이에 맞는 모듬교육을 통해 학생의 진로 결정을 지원합니다.

학교·교육청·기업·지자체가 함께하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우수기업에서 지역 인재가 자리잡고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학생, 할 줄 아는 학생으로 지역기업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질문과 토론을 통한 창의적 인재양성

전기과



- 교육과정 : 전기 내선공사 및 전기기기 제작, PLC-공유압 이용 프로그램 작성 및 운영
- 취득자격(기능사) : 공유압, 생산자동화, 송강기, 전기, 전기기기
- 직무 가능 유형 : 전기전자 제품 및 부품 제조 내선공사시공, 전기전자 설비유지

기계과



- 교육과정 : 기계가공 기술 이용 가공조립, 설계 용접 및 특수용접 기술 이용 시공 및 설치
- 취득자격(기능사) : 기계가공조립, 설비보전, 용접, 컴퓨터응용밀링, 특수용접
- 직무 가능 유형 : 부품제조 및 가공, 기계조립, 용접, 기계설치 및 정비

금형과



- 교육과정 : 2D 및 3D 기계설계 기술 이용 설계 MCT 및 CNC 공작기계 첨단 가공
- 취득자격(기능사) : 컴퓨터응용 밀링, 금형, 컴퓨터응용선반, 전산응용기계제도(CAD)
- 직무 가능 유형 : 기계설계, 금형제작, 부품가공, 기계설치 및 정비

우리학교 전체 학생 대상

- 교육과정 : 학생의 소질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모듬 교육과정 운영
- 취득자격(기능사) : 지게차, 굴삭기, 컴퓨터활용능력, 정보처리 기능사, 한국사 자격증을 재학생 70%이상 취득
- 직무 가능 유형 : 현장업무와 사무실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융합직무교육

- 학교와 기업에서 실무능력을 배우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 기업 맞춤형 산업체 기능요원 **병역특례과정 특성화고 인력양성 과정**
- 공공기관·대기업·공무원반 **취업역량강화 교육과정**
- 학생이 행복한 학교, 지역민과 함께하는 **매력적인 직업계고 교육과정**
- 설계, 3D모델링, 컴퓨터활용능력, 사무행정업무를 위한 **여학생 사무직 교육과정**
- 기계설계/CAD, 배관, 냉동기술 직종 기능올림픽 국가대표 양성 **기능영재반**
- 전남교육청 개발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통한 맞춤형 취업과정 **JOBs 교육과정**
- 대한민국 명장에게 배우는 현장실무 교육, 배관설비 CEO양성 **명장공방 봉사단**

(58246) 나주시 건재로 43 (대호동) 나주공업고등학교 tel: (061) 332-3914(교무실), 3911(행정실) / fax: (061) 333-0743